

제주 물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높다

11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5.3% 올라 외환위기 후 최고치서 4개월 연속 상승 둔화 등유 등 난방유 값 급등해 서민들 추운 겨울

무섭게 치솟던 제주지역 소비자물가가 11월에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5%대의 고물가를 이어갔다. 특히 개인서비스물가는 7%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겨울철 서민가정에서 실내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 가격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치솟아 어느해보다 힘든 겨울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도 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가 내년 초까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2일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11월 제주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09.97(2020년=100)로 전년동월 대비 5.3% 상승했다. 앞서 6월과 7월에 각각 7.4%씩 올라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0월(7.6%) 이후 약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는 8월 6.8%로 소폭 상승폭을 줄인 후 9월(6.7%), 10월(6.5%)에 이어 11월까지 3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하는 양상이다.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과 일부 석유류를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꺾이면서 전체 물가 상승세가 낮아졌다.

하지만 제주 물가는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5.0%)을 여전히 웃돌고, 개인서비스요금은 7.6%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7%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했다. 무(89.4%), 꿀(13.3%), 닭고기(13.5%), 파(26.1%)가 큰폭으로 올랐고 오이(-51.8%), 쌀(-8.8%), 사과(-15.7%), 배(-26.7%), 상추(-44.7%)는 내렸다.

공업제품은 6.2% 올랐다. 경유(19.1%), 등유(37.6%), 빵(16.4%), 기능성화장품(30.7%)은 올랐고 휘발유(-7.9%)는 가격이 떨어졌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은 15.2% 상승했다. 전기료(18.6%)와 도시가스(28.6%)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비스요금은 5.1% 올랐는데 공

공서비스요금이 1.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개인서비스요금은 7.6% 올라 전국 상승률(6.2%)을 웃돌면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주차료(442.3%), 보험서비스료(14.9%), 생선회(외식, 10.2%), 된장찌개백반(16.8%), 치킨(11.3%), 쇠고기(외식, 9.2%) 등의 오름폭이 컸다.

구입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5.0% 올랐다. 올해 2월(4.8%)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0.7% 내렸는데, 올해 4월(-0.1%) 이후 7개월만의 하락이다. 신선어개는 3.8% 올랐고, 신선채소(-3.3%)와 신선과실(-1.2%)은 내렸다.

문미숙기자

내년 5월 2-5일 전기차엑스포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내년 제10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5월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중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기로 하고, 지난 1일 국내외 인사 180여명으로 구성된 '제10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내년 엑스포는 글로벌 e-모빌리티의 빠른 진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와 콘퍼런스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선박과 UAM(도심항공교통), 로봇, 전동·자율주행 농기계 등 다양한 e-모빌리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문미숙기자



날씨 추워도...브로콜리 수확 4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추운 날씨를 이겨내며 브로콜리를 수확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11월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악화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 경기지수(BSI)가 소비 감소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11월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전망은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상승했다.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11월 체감 경기와 12월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도내 소상공인 체감BSI는 58.6으로 전월보다 8.1포인트(p) 떨어졌다. 전통시장 체감BSI도 전월 대비 21.6p 떨어진 50.0에 그쳤다. BSI 지수는 100 이상은 경기 호전, 100 미만은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11월 체감BSI가 악화된 사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를 소상공인(45.4%)과 전통시장

(46.7%) 모두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물가 및 금리 상승'을 각각 22.7%, 20.4%라고 응답했다.

12월 전망BSI는 소폭 상승했다. 소상공인 전망BSI는 84.6으로 전월 대비 5.0p 올랐고, 전통시장 전망BSI는 84.3으로 8.8p 상승했다. 12월 전망이 호전될 것으로 본 사유로는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다. '연말이어서'는 이유가 소상공인 50.0%, 전통시장이 37.5%로 조사됐.

문미숙기자

등	12	17	20	26	28	36
2 등	보너스숫자					
1 등	6개 숫자 일치					
2 등	5개 숫자+보너스숫자 일치					
3 등	5개 숫자 일치					
4 등	4개 숫자 일치					
5 등	3개 숫자 일치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12월 5일-11일)

“고객 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



▶서흥새마을금고=7일 창립 44주년을 맞는 서귀포시 소재 서흥새마을금고(이사장 이경용·사진)는 서민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서흥새마을금고는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에 집중하면서 자산 1140억원을 달성했으며, 회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이경용 이사장은 “고객 감동과 건전한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고객이 더 즐겁고 직원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금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763-2216.

“조합원·지역주민 소득증대 노력”



▶하귀농협=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하귀농협(조합장 강병진·사진)이 8일 창립 52주년을 맞이한다. 하귀농협 창립 52주년과 하나로마트 개점 15주년을 맞아 하나로마트에서 초특가 할인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있다.

강병진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역농협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항상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798-1152.

“최고의 제품 합리적 가격에 제공”



▶형제전업=8일 창립 51주년을 맞는 형제전업(대표 고봉진·사진)은 다년간 쌓은 노하우와 실력으로 전기공사 자재부터 일반 전기용품까지 각종 다양한 제품들을 완벽해 최고의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 최대의 전기자재 전문점으로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LED 조명 등 절전형 전기 자재를 구비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봉진 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749-8900.

“고품질 인쇄문화 창달 앞장”



▶일신옵셋인쇄사=9일 창립 51주년을 맞는 일신옵셋인쇄사(대표 고훈철·사진)는 탄탄한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 자동설비 구축 등을 기반으로 고객 만족과 서비스를 극대화하면서 제주지역 인쇄업계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사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 인쇄시스템 등의 설비를 보강해 도내 관공서 인쇄물에서부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기획물과 팸플릿, 연감 등을 출판하면서 고품질 인쇄문화 창달에 앞장서고 있다.

고훈철 대표는 “성실과 믿음, 신뢰를 기반으로 제주지역 선진 인쇄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722-2921.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도정소식

2022년 12월 2일부터 빛나는 제주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됩니다. (문의: ☎1522-0082)

도민 사이버 외국어 과정

- 교육기간: 2022. 1월 ~ 12월(연중)
- 교육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 교육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도민외국어 교육"(회원가입 후 이용)
- 문의: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710-7444)

매장 내 1회용품 규제품목 확대 안내

- 시행일: 2022년 11월 24일(목)
- 대상업종: 18개 업종(집단지식, 식품점영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등)
- 대상품목: 22개(4품목 추가, 18개→22개)
- ※ 1회용 컵·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봉투·소피백,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광고선전물
- (추가 4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제주도청 생활환경과 ☎064-710-6033

제주시정소식

2022년 하반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 접수기간: 2022. 12. 1.(목) ~ 12. 30.(금) ※상시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사·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외대상
-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차매특별등급 포함)
- ☞ 중복지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583),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림중요사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요목

유라조생	2~3년생
유라실생	5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지향	3년생
빙자묘	1년생

한림중요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우량 감귤요목

우수한 품질의 감귤요목만 생산하여 직접 판매합니다

레드향 · 천혜향 · 황금향
한라봉 · 궁천
오하라베니 · 조경용 하귤

※ 현장방문 환영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68-168

제주감귤요목영농조합법인
010.7204.1286